

2021년 11월 15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방송·인터넷·통신은 11월 14일 11시부터 보도)

재해보험정책과 과 장 강민철(044-201-1791), 사무관 최종순(1794) / 제공일: 11월 12일(총 7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농식품부, 대설·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

- 농업재해대책 상황실('21.11.15.~'22.3.15.)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에 주력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◇ 대설, 한파 등 겨울철 재해 대비 기간(11.15.~3.15.) 중 「농업재해 대책상황실」 중심으로 재해 예방·경감, 복구지원 대책 추진

- (상황관리) 재해대책상황실(4개팀) 구성·운영, 24시간 상황관리
- (공조체계) 중대본, 지자체, 농진청·산림청·농협중앙회 등
- (피해대응) 관계기관 협력,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지원 추진
- (농가홍보) TV, SMS, 마을방송 등 활용, 기상·예방요령 전방위 홍보

◇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철저한 사전 대비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대설,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「2021년 겨울철 농업 재해대책」을 수립하고, 농촌진흥청, 지자체,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·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.

-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, 올 겨울은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어, 한파·대설 등 피해 우려가 있다고 예측된다.
- 이에, 농식품부는 11.15일부터 내년 3.15일까지 「농업재해대책 상황실」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·경감,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.

□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설, 한파 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, 정부는 사전대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(피해내역) 최근 5년간 대설,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21,951ha, 시설 942ha 피해 발생, 1,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다.

**【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 】**

- ▶ 농작물피해 : ('16) 2,842ha → ('17) 438 → ('18) 6,296 → ('19~'20) - → ('21) 12,375
- ▶ 농업시설물 : ('16) 143ha → ('17) - → ('18) 685 → ('19~'20) - → ('21) 114
- ▶ 복구소요액 : ('16) 197억원 → ('17) 12 → ('18) 377 → ('19~'20) - → ('21) 458



비닐하우스



인삼재배시설



포도비가림시설

○ (사전대비) 비닐하우스, 축사,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합동점검 및 지자체·농협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농업인 지도를 집중 추진한다.

- (중앙부처 합동) 11.16.~19. 기간 중 행정안전부와 함께 농업 시설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.

\* 점 검 반 : 행안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시·도(17개) 합동(57명)  
 점검사항 : 농업시설 점검, 비상근무체계, 협업 대응체계, 교통소통 등 점검

- (지자체·농협 합동) 겨울대책 기간 중 수시로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점검 및 예방교육을 추진한다.

\* **원예시설** : 최근 겨울철 재해 피해시설(경남·전남 등 겨울철 주출하지 중심 3천개소) 사전 점검 및 재해예방 조치 안내

\* **축산시설** : 간이축사 등 취약시설(1,100여개소)을 중심으로 지자체·축협·축산단체 합동점검 및 기술지도(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진)

\* **인삼재배시설** : 전국 인삼농협 조합원 대상 대설·한파 피해예방요령 기술지도

-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「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」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, 중대본과의 공조체계 유지,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본격적인 겨울철 재해대응 태세를 갖추는 계획이다.
- (상황관리) 재해대책 상황실(4개팀) 운영을 통해 기상특보 및 피해 예방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·전파, 재해대책상황관리 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.



- (공조체계 유지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복구 및 정밀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.
  - (중대본) 거대재해 발생 시 **연락관을 파견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,**
  - (지자체·유관기관) 중앙에서 시·도, 시·군, 읍·면까지 **입체적으로 연결하는 ‘재해대응 비상연락망(2천명)’**을 구축하였고, 기상청, 농진청, 국방부, 농협중앙회, 농어촌공사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.
- (피해발생 대응) 태풍, 집중호우,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.
  - (응급복구) 국방부, 농협 등 기관과 협력하여 **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**하고, 농촌진흥청, 지자체(농업기술원)과 협력하여 **피해 최소화 및 병해충 확산 방지** 등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.

- (복구지원)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, 정밀조사,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.
- (재해보험)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.
  - 재해보험 가입농가 손해평가 후 보험금 지급(추정보험금의 50% 선지급)
  - 전국적인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지역간 손해평가 인력 이동 배치(비재해지역 → 재해지역), 손해평가반 구성 간소화(3~4인 → 2인)
- (농가대상 상황전파) 기상특보(주의보·경부) 발효시 피해우려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(SMS),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, 마을 방송 및 TV 자막방송(YTN, NBS 등)을 통해 기상 상황 및 농업인 피해예방 행동요령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.
-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,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
  - 농업인이 비닐하우스, 축사의 버팀목 보강,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과,
  -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,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·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, 미가입 농업인은 읍·면 사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# 참고 1

# 겨울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

## ☀️ 폭설·한파 이렇게 대처합니다.

### 🏠 원예·특작시설 관리요령

#### \* 내재해형 시설 규격 설치 \*

지역별 설계기준 이상의 규격에 맞는 내재해형시설 설치

- ▶ 파이프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구조용 파이프(SPVHS, SPVHS-AZ) 사용
- ▶ 서까래, 기포대 규격 및 설치 간격 준수
- ▶ 하우스 등간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면 환기불량, 햇빛투입량 감소, 대설시 쌓인 눈에 의한 하우스 축박시설 파손 우려

####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

구분	적설심(m)	풍속(m/s)
연동 비닐하우스(5중) • 1-2W형(07-1형) • 1-2W형 3중(10-1~2형, 12-1형) • 빈로형 1중	53	40
	55	40
	57	36
단동 비닐하우스(19중) • 폭 5~5.8m(5중) • 폭 6m(2중) • 폭 7~7.8m(7중) • 폭 8~8.9m(5중)	27~50	27~35
	41~50	32~35
	25~55	33~42
	26~48	32~37
과수 비닐하우스(3중) • 보도 2중 • 관골 1중	40~44	35
	50	40
광학 비닐하우스(8중) • 이치형 1중 • 트레스팅 1중 • 보온재 외박복형 6중	33	40
	35	40
	20~45	20~35
인삼재배시설(20중) • 칠재 5중 • 뒷재 15중	27~53	
	22~70	
간이비식재배사(2중) • 폭 5.8m, 6.6m	45~50	40

\* 자세한 내용은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참조

농촌진흥청 홈페이지(www.rda.go.kr), 시·군농업기술센터

### 🚗 가축·축사 관리요령

#### \* 통풍기 축사 사전관리 \*

- ▶ 노후화된 축사시설 자주 보강. 정기적으로 안전점검
- ▶ 축사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단열시설, 적정 사육밀도 유지
- ▶ 폭설 등 기상재해 대비 1주일 분의 사료 확보
- ▶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전선 피복상태 점검 및 전열기구 정비
- ▶ 농장내·외부 청결 유지로 아생조류·동물 침입방지

#### \* 피해우려 및 발생시 관리 \*

- ▶ 가축은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지므로 사료량을 10~20% 늘려 급여
- ▶ 외부 급수시설은 동파방지를 위한 피복과 전기시설 점검
- ▶ 폭설 시 축사 파손에 대비 지붕에 쌓인 눈은 제거하고, 파손된 축사는 자주 보강 등 응급복구 실시
- ▶ 축사가 붕괴된 경우,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하여 저온에 의한 피해발생 예방

#### \* ASF·구제역·고병원성시 예방 차단방역 준수사항 \*

- ① 남은 음식물 돼지 급여금지    ② 동물, 축산물 구입차제
- ③ 구제역 백신접종 반드시 실시    ④ 철새도래지 방문차제
- ⑤ 농장 출입제한 및 차량·사람 소독 철저, 출입기록 작성
- ⑥ 의심증상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

☎ 신고전화 1588-4060, 1588-9060

#### \* 보험 관련 및 농업기상상담 문의 \*

농작물재해 보험	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농협
공수해 보험	지자체 각 읍·면·동 주민자치센터
농업기상상담	농촌진흥청(1544-8572), 각 시·군농업기술센터

www.rda.go.kr

##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

###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



농림축산식품부    농촌진흥청

## ☀️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가실천 사항

### 1 사전준비

- 노후화된 시설은 사전점검 및 보강작업 실시
- 온풍기 고장 및 장전에 대비 전기시설 점검
- 느슨해진 하우스배드(끈)는 평행하게 당겨줌
- 과수 주간부에 합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피복(1m정도)
- 인삼 차광량 및 과원 방조망은 미리 권어두고, 배수로 정비
- 간이비식재배시는 차광막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움
- 가뭄지속 시 관수 작업 및 낙엽제거 등 과원 청결유지



▶ 과수 주간부 덧칠피복 또는 수성페인트 칠하기



▶ 사설하우스 고정끈 설치 및 보강

### 2 강풍·대설·한파 특별발령시

- (강풍)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 가동으로 굴조와 비닐 밀착
- (대설) 보강지주를 2~6m 간격으로 설치, 낙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림,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밀고 난방기 가동, 시설붕괴 우려시 비닐찢기 실시(안전신고 유의)
- (한파) 외부 창을 닫고 온풍기 등 가온시설 정상작동 확인, 정전 시 난방기 고장에 대비 응급지원요청, 일교율 등 준비



▶ 노후화된 시설 등은 보강지주 설치



▶ 하우스 위 눈 쓸어 내기

### 3 피해발생시

-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피해 최소화
- 상육부친포장 열면시비 및 보온재(비닐, 부직포 등)를 이용해 소형 터널로 보온
- 회복이 불가능한 포장은 대파 또는 재정식



▶ 시설파손, 저온피해 우려시 소형터널 설치



▶ 정전, 온풍기 고장시 양초·알코올 등 응급조치

응급대책 활용시 화재 위험성 및 산소부족으로 불이 꺼질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 필요

## 참고2

##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

- 복숭아·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



< 백색 부직포 싸매기 >



< 볏짚 싸매기 >



< 보온재료 싸매기 >

- 시설하우스 농가는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

-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보강지주(보조지지대)를 2~6m 간격으로 설치



<보강지주 설치 전경>



<도리와 보강지주의 연결>



<바닥 지지판>

- 하우스 밴드(끈)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
-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
- 가온(加溫)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

-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



<비닐씌움>



<천창을 열어둠>



<차광망 위에 비닐씌움>

-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땅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



< 방조망 걷음 >



< 눈 털음 >



< 차광망 걷어둠 >

- 축사(소·돼지·닭 등)

- 눈이 잘 흘러내리도록 햇빛가림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씌워둠
- 오래된 시설은 뼈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조기둥 설치
  - 파이프가 부식된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보조기둥 추가 설치
  - 보온덮개나 햇빛가림망이 씌워져 있는 시설에서는 일반 비닐하우스 보다 보조기둥을 더 좁은 간격으로 설치